

■ 괴운(槐雲) 칼럼



### 음식팔진미(八珍味)와 인생팔미(人生八味)

권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예로부터 중국에서 성대한 음식상에 갖춘다고 하는 여덟 가지 맛있는 진귀한 음식을 일러 팔진미(八珍味)라 하였다. 그러나 팔진미의 음식종류는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다. 팔진(八珍)이란 기록은 춘추전국시대 주나라 예법서인 주례(周禮)에 처음 등장한다.

주례에 보면 ‘선부는 왕의 음식과 음료 희생물과 반찬을 준비하고 이로써 왕과 왕후 세자를 봉양한다... 진미로는 8가지를 사용한다(膳夫掌王之食飲膳羞以養王及后世子 ... 珍用八物)’라 하였고 ‘식의는 마땅히 왕에게 6가지 주식... 8가지 진귀한 반찬을 준비한다(食醫掌和王之六食... 八珍之齊)’란 말이 있다.

예기 내칙(禮記 內則)에 따르면 주례의 팔진은 순모(淳母), 순오(淳熬), 포장(炮 ), 포돈(炮豚), 도진(燔珍), 오(爇), 지(漬), 간료(肝 )로 개, 소 돼지, 양, 사슴 등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든 여덟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당송(唐宋)시대와 원명청(元明清)시대에 와서 팔진의 내용도 차이가 많고,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나라의 유명한 만찬진석(滿漢全席)에는 4가지 팔진(四八珍)까지 등장하여 야생동물의 산팔진(山八珍), 수산물 중심의 해팔진(海八珍), 납짐승 대상의 금팔진(禽八珍), 풍물류의 초팔진(草八珍)까지 등장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려진 팔진요리는 (1)곰 발바닥(熊掌), (2)원숭이 입술(猩脣), (3)사슴 힘줄(鹿筋), (4)표범 태반(豹胎), (5)잉어 꼬리(鯉尾), (6)낙타 발굽(駝蹄), (7)낙타 혹(駱峰), (8)매미 배(蟬腹)이며, 여기에 용의 간(龍肝), 봉황의 골수(鳳髓), 모기 눈(蚊眼),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전복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팔진미는 맛보다 희귀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음식으로 왕이나 고관들을 위한 요리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인생팔미(人生八味)이다. 중용(中庸) 4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가 없건 마는 맛을 아는 이가 적다(人莫不飲食也 鮮能知味也)’라는, 맛에 대한 철학적인 말이 나온다. 따라서 맛은 음식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맛이 있다. 조선 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중용’에서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생팔미(人生八味)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제 1미(一味)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음식의 맛(飲食味)’이다.



이달의 책

일기에서 역사를 엿보다 :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 우인수, 이수환, 정은진, 전성건, 이상호, 홍원식



하며, 중간에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면 무려 42년 분의 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우인수 교수 등 6명을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청대일기를 연구한 결과물을 2016년 출판했다. 이 책은 관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가문 배경, 청대일기가 지닌 문학적 가치, 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적용되는지, 관상일의 성리설(性理說) 및 퇴계학파의 문화에 대한 고찰 등 청대일기의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와 정치 등 역사를 엿보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생활속의 한방건강



### 이해와 한마음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1. 이해(理解)와 이해(異解)  
이해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이해(理解)한다는 말로 사용된다. 즉 너를 이해한다(understand)고 했을 때는 너의 본래 마음이나 의도를 알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해(異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된다는 말이다.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해(理解)는 생각이나 행위의 보편적 본질을 보는 관점이다. 내가 어려운 수학이나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면서 필요한 원리나 이유에 대한 이해(異解)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해(異解)는 정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 다르게 해석되는 것, 즉 ‘다름’에 해석의 기본을 두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가 행동한 행위의 상황이나 정황이 보통과 다르게 또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특이했음을 받아들인다는 이해(異解)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더 납득이 빠르고 쉬운 것 같다. 이해(理解)는 ‘나’ 하나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해(異解)는 ‘나와 너’의 둘 또는 그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해관계’를 말할 때의 이해(利害)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라는 복합어이다.

2. 마음의 틀과 마음건강  
사람은 저마다의 마음이 있다. 각자의 마음은 생각, 감정, 본능의 3기능을 가진 하루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의 틀’이 이루어지므로, 내 안에서조차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기능적 마음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각각이다. 마음의 건강은 자신과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의 틀이 의미가 있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채워져 세상을 맑게

자신의 내적 욕망 추구에 상대를 위한 배려나 양보 등의 ‘덕’이 만나면, 내 마음에 너의 마음을 더할수록 더 큰 하나의 마음이 된다. 이에 따라 비교적 작은 갈등과 적은 혼란으로 따스함과 조화로운 질서를 구축하면서, 우리는 가족, 우리는 문중, 우리는 민족, 우리는 인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갈 것이다.

권태복 부회장

대중회 직원에게 친필 족자 증정



권태복(權泰福, 부호장공파, 33세) 대중회 부회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2월 9일(화) 대중회를 방문하여 “집안이 어둡다면 자신이 태양이 되어라”(가입음영家人陰影 己發陽光)라는 친필 족자를 대중회 권오상 총무국장 등 직원에게 증정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1차)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3월 정기산행 시산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발짝 거리두기 하면, 코로나 극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회 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 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1년 3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개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2021년 3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2021年 2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 납부기간 : 1. 28. ~ 2. 24.    ■ 총 납부자 11명

단위:원

|             |        |            |        |            |        |
|-------------|--------|------------|--------|------------|--------|
| 권갑현(영주)     | 30,000 | 권영창(서울동대문) | 30,000 | 권종호(완주)    | 30,000 |
| 권상(진주)      | 30,000 | 권오수(경기고양)  | 50,000 | 권주석(상주)    | 30,000 |
| 권영대(영주)     | 30,000 | 권오창(광주)    | 30,000 | 권정환(상주)    | 30,000 |
| 권영우(대구 경북대) | 30,000 | 권용일(서울구로)  | 30,000 | 총 350,000원 |        |